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32  
2016. January

부산시 관광협회  
2016년 업종별 대표자 전체회의 개최  
부산시 관광협회는 2016년 업종별 전체회의를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업종별 분과 위원장을 선출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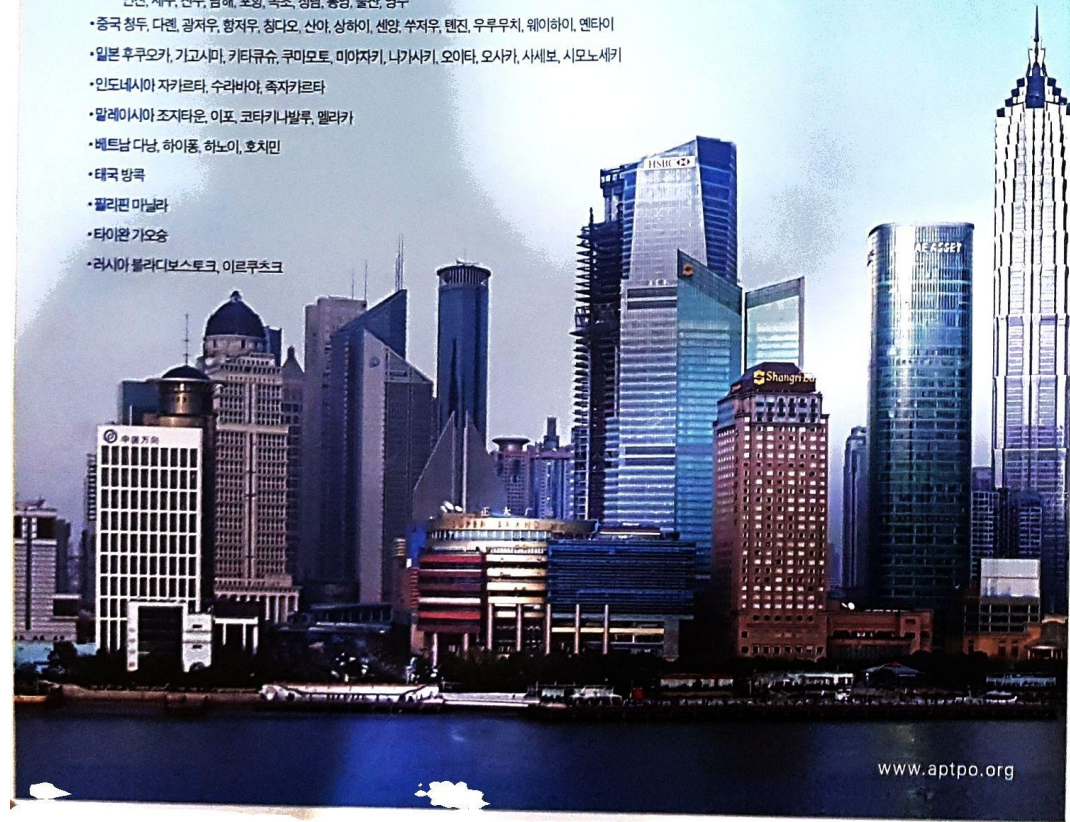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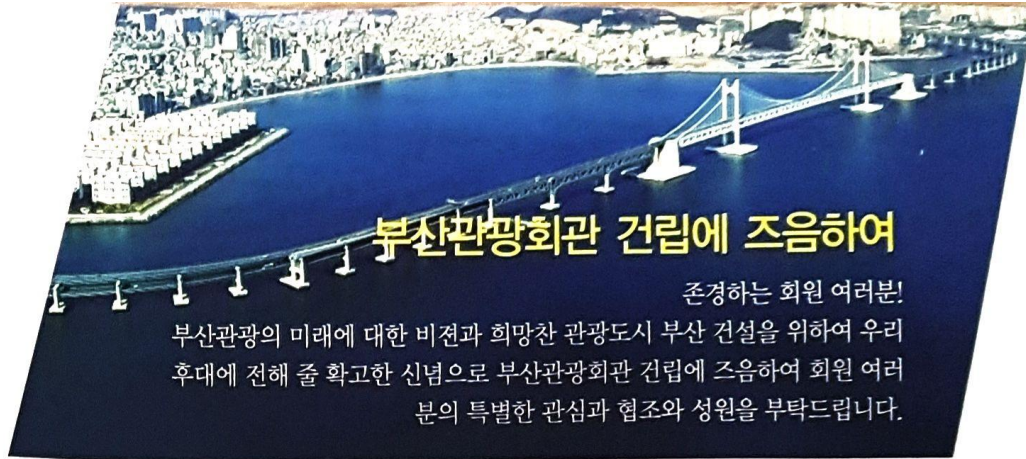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광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우저우, 댜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카타큐슈, 쿠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찬 관광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후대에 전해 줄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부산관광회관 건립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

총 기금 적립액 (2016년 1월말 기준) ₩276,010,626

| 2013년도 기금 적립내역   |                   |             |
|------------------|-------------------|-------------|
| 회장               | 이태섭(게스후? 대표)      | 1억원         |
| 부회장              | 신도역(씨클라우드호텔 대표)   | 500만원       |
| 부회장              | 강석현(두모씨앤씨 대표)     | 500만원       |
| 이사               |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 200만원       |
| 회원               |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 200만원       |
| 회원               |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 200만원       |
| 회원               | 이수태(앤쇼핑 대표)       | 200만원       |
| 회원               |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 100만원       |
| 2014년도 기금 적립내역   |                   |             |
| 회장               | 이태섭(게스후? 대표)      | 500만원       |
| 부회장              | 신도역(씨클라우드호텔 대표)   | 500만원       |
| 부회장              | 강석현(두모씨앤씨 대표)     | 200만원       |
| 부회장              | 김해룡(부산해상관광 대표)    | 200만원       |
| 부회장              | 강준구(진순관광여행사 대표)   | 100만원       |
| 부회장              | 장순복(대륙항공여행사 대표)   | 100만원       |
| 부회장              | 서학영(동방여행사 대표)     | 100만원       |
| 이사               | 김성현(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 200만원       |
| 이사               |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 100만원       |
| 회원               |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 100만원       |
| 회원               |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 100만원       |
| 회원               | 이수태 · 이광신(앤쇼핑 대표) | 100만원       |
| 협회 사업수입 기금(이자포함) |                   | ₩69,610,626 |
|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                   |             |
| 사무국 직원 일동        |                   | 100만원       |
| 회원               | 정진수(팬투어 대표)       | 10만원        |
| 이사               | 이봉순(리컨벤션 대표)      | 100만원       |
| 회원               | 장일중(아크투어 대표)      | 300만원       |
| 회원               | 김정연(관광호텔 42번가 대표) | 30만원        |
| 이사               | 문영훈(미동암소정 대표)     | 50만원        |
| 이사               | 김영재(VIP국제여행 대표)   | 50만원        |
| 회원               | 이상우(한남해외여행사 대표)   | 200만원       |
| 회원               |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 100만원       |
| 회원               | 정삼남(모두모두농원 대표)    | 100만원       |
| 회원               | 김석만(시티투어부산 대표)    | 100만원       |
| 부회장              | 강석현(두모씨앤씨 대표)     | 200만원       |
| 익명               | 익명(산계서)           | 50만원        |
| 감사               | 이성태(하브투어 대표)      | 50만원        |
| 협회 사업수입 기금       |                   | 5,000만원     |

부산관광을 선도하는 강한 협회를 만드는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협회 발행 각종 간행물과 회관 건립 초석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조성 계좌-

부산은행 101-2024-4232-05    예금주 : 부산관광협회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손비처리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중규, 이해연,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호영 (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6년 1월 31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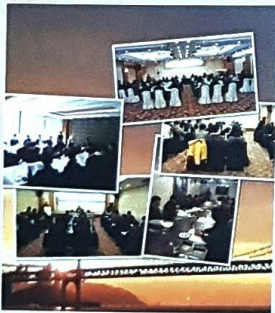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TEL. (051)463-3111, 463-302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0 석천빌딩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t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부산 관광협회 2016년 업종별 대표자  
전체회의 개최

# Contents

## 2016. January Vol.32

- 05 새해 아침에 - 이해연
- 06 2016년, 국제영화제·부산국제관광전·불꽃축제 등 국제행사 다양
- 07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년사
- 08 부산시 관광협회 2016년 업종별 대표자 전체회의 개최
- 11 '외국관광객 보고 먼저 웃자' 광복로에서 미소+친절 캠페인
- 12 해수부 지성대부두 일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
- 13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 거점공간' 조성 청사진 나와
- 14 김해국제공항 개항 40년, 부산신항 개장 10년
- 15 부산 마이스 산업 올해 메가톤급 국제회의 유치로 순항 전망
- 16 부산·김해·양산 연계 협력 시너지를 사업추진
- 17 미포어촌계·우동어촌계·민락어촌계·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 산·학·민 업무협약 체결
- 18 부산 등대를 맞춤형 관광 택시 운행
- 19 서부산 관광 개발 본격화로 동·서 균형 발전 추진
- 20 5,500명 탄 쿠파로 새해 첫 입학, 올해 70만 명 방문 예상
- 21 국제여객터미널 첫 '크루즈 모험' 유치
- 22 국내 유일 '일제강제 동원 역사관' 개관
- 23 동남권 과학교육장 '국립과학관' 개관
- 24 팬스타 라이너스·현대상선 합작 국적크루즈 선사 출범
- 25 부산~창원 민지로로 완전개통
- 26 '새뜰마을'에 선정된 감천문화마을, 살기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 27 미월드 자리에 6성급 '캠핀스키 호텔 부산' 건립
- 28 2015 부산 10대 히트상품, 영화 '국제시장' 선정
- 29 광안리어방 축제 '2016년 유망축제' 지정
- 30 부산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로 변신
- 31 천혜의 절경 태종대 관광 인프라 적극 활용
- 32 호텔가소식
- 34 칼럼 - 부산관광... 휴머투어리즘(Humtourism)이 필요하지 않은가?
- 36 칼럼 - 여행이야기\_겨울 북해도 이야기
- 38 겨울여행 - 간이역 기다림, 그리움있는곳...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애환이 깃든 간이역
- 42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 명소기행」 출간
- 43 현상의 드라이브 코스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 새해 아침에

-이해연-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 눈을 바라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이므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생수는 그리움으로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사랑을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내가 어딘가에도  
 밖으로 오는 바람  
 말은 없고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겨울에도 돌아나는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네가 앉아 웃고 있다  
 날마다 나의 길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네 안에서 정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 입는다  
 내 목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 저고리에  
 자못빛 끝등을 단다  
 아름다운 사랑아



# 2016년, 국제영화제·부산국제관광전·불꽃축제 등 국제행사 다양

부산은 2016년에도 동성하고 일찬 국제행사와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는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5감을 만족 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들이 많다. 계절별로 주목할 만한 부산의 주요 축제와 행사들을 소개한다.

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일본 간 평화교류의 상징 '조선통신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축제. 5월1~3일 남포동·광복로 일대에서 열린다. 부산항축제(5월 중), 부산국제연극제(6~15일)가 뒤를 잇는다. 여름은 부산의 바다를 만끽할 때. 부산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바다축제는 8월~7일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5개 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8월4~6일)도 함께 열려 흥을 돋운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8월26일~9월3일 부산전역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웃길 예

정이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올해부터 바다축제기간이 아닌 8월26~28일 펼쳐진다.

가을은 영화와 공연의 계절이다. 아시아의 유명 가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10월1~23일 열린다. 한국·일본·중국 등 세계 유명 영화배우 감독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10월6~15일 계획되어있다. 부산불꽃축제는 10월21~22일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겨울에도 축제는 계속된다. 보드게임마니아들의 축제인 '보드게임 페스티벌'이 12월 벵스코에서 펼쳐진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는 것을 축하하는 '시민의 종 타종식'이 12월31일 용두산공원일원에서 열린다.

## 2016년 부산 주요 축제·행사 일정

| 월  | 행사명                | 일자       | 장소          |
|----|--------------------|----------|-------------|
| 1월 | 2016 드림스코리아        | 28~30    | 벵스코         |
| 3월 | 2015년 시민나눔기행 행사    | 3월 중     | 북구 덕천동      |
|    | 부산국제보트쇼            | 10~13    | 벵스코         |
| 4월 | 부산수퍼컴퓨터대회          | 4월 중     | 수영만 오토경기장   |
|    | 제34회 부산연극제         | 1~17     | 문화회관시민회관 등  |
| 5월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22~26    | 영화의 전당      |
|    | 부산항 축제             | 5월 중     |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
|    | 2016 부산광역시 일자리 박람회 | 5월 중     | 벵스코         |
|    | 2016 부산통신사 부산축제    | 1~3      | 광복로 일원      |
|    |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 6~15     | 문화회관        |
| 6월 | 부산콘서트미켓BCM 2016    | 11~14    | 벵스코         |
|    | 아트부산 2016          | 19~23    | 벵스코         |
|    | 제1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 21       | 송산현관광장      |
|    | 부산 김소포츠 2016       | 5~9      | 서낙동강수영장 일원  |
| 7월 | 부산 마린스포츠 2016      | 5~10     | 수영만 오토경기장 등 |
|    | 국제서핑대회             | 6월 중     | 해운대해수욕장     |
|    | 제4회 부산 조경·정원 박람회   | 6월 중     | 벵스코         |
|    | 2016 부산국제모터쇼       | 2~11     | 벵스코         |
|    |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       | 3~7      | 문화회관        |
|    | 제25회 부산무용제         | 2~6      | 문화회관        |
| 8월 | 제33회 부산음악공쿠르       | 14       | 문화회관        |
|    | 제22. 부산비움대전        | 22~8. 21 | 시립미술관       |
|    | 제21회 부산바다축제        | 1~7      | 해운대해수욕장 등   |
| 9월 | 제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 4~7      | 해운대해수욕장 등   |
|    | 2016 부산국제광고제       | 25~27    | 벵스코         |
|    | 제17회 부산국제다시페스티벌    | 26~28    | 삼락성대공원      |
|    | 제17회 부산국제게임박람회     | 28~9. 3  | 문화회관        |
|    | 제4회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   | 8월말      | 벵스코 등       |

| 월   | 행사명                 | 일자      | 장소           |
|-----|---------------------|---------|--------------|
| 9월  |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 9월 중    | 수영강          |
|     | 부산광역시장배 드래곤보트대회     | 9월 중    | 수영강          |
|     | 대한민국 국제 해양페스티벌      | 9월 중    | 벵스코 등        |
|     | 2016 부산신기술박람회       | 9월 중    | 벵스코          |
|     | IT EXPO BUSAN 2016  | 9월 중    | 벵스코          |
|     | 2016 클라우드엑스포 코리아    | 9월 중    | 벵스코          |
| 10월 | 2016 부산비엔날레         | 9~10월 중 | 부산시립미술관 등    |
|     | 제8회 자원순환의 날         | 6       | 시청           |
|     | 2016 세계자동차학술회       | 28~30   | 벵스코          |
|     |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 1~23    | 벵스코 등        |
|     | 부산컵 세계 여자태권도 오픈대회   | 10월 중   | 수영만 오토경기장 등  |
|     | 제10회 세계해양포럼         | 10월 중   | 벵스코          |
|     |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 6~15    | 영화의전당 등      |
|     | 부산자갈치축제             | 6~9     | 자갈치시장        |
|     |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 8       | 문화회관         |
|     | 부산여울제               | 17~24   | 문화회관, 예술회관 등 |
| 11월 | 부산국제합창제             | 19~22   | 문화회관         |
|     | 제12회 부산불꽃축제         | 21~22   | 광안리해수욕장      |
|     | 제14회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 27~29   | 벵스코          |
|     | 2016 부산 잡(JOB) 페스티벌 | 11월 중   | 벵스코          |
|     | 제18회 부산독립영화제        | 11월 중   | 영화의전당 등      |
|     | 제8회 부산갯길축제          | 11월 중   | 갯벌길 일원       |
|     | 2016 부산머니쇼          | 11월 중   | 벵스코          |
|     | 2016 부산국제신발발매전시회    | 3~5     | 벵스코          |
|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    | 17~20   | 벵스코          |
|     | 제36회 부산미술제          | 21~26   | 문화회관         |
| 12월 | 2016년 보드게임 페스티벌     | 12월 중   | 벵스코          |
|     | 부산어묵축제              | 12월 중   | 부산역 일원       |
|     | 2016년 시민의 종 타종식     | 31일     | 용두신공원        |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년사

## 새해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개관해 창조경제시대를 구현해나갈 것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융성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군 한 해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

양적으로 이미 정착되어 가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대표사업 발굴,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질적 도약을 이뤄나갔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올해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개소에 이어 새해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개관해 창조경제시대를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 '경제', '관광', '환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6~2018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새해에는 융복합관광콘텐츠 발굴, 서울과 제주로 집중되는 외래 관광객의 전국적 확산유치, 사후 면세제도 개선, 한류산업 연계 비자 도입 등으로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손끝에 문제부 정책이 맞닿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 국정 기조 4년차로, 문화융성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을 전개해 전 세계에 한국인의 열정과 창조력을 알리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2016~2018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새해에는 융복합관광콘텐츠 발굴, 서울과 제주로 집중되는 외래 관광객의 전국적 확산유치, 사후 면세제도 개선, 한류산업 연계 비자 도입 등으로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새해에도 문제부의 열정 어린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관광공사·영남권 지자체, 일본관광시장 공략강화

## 2월중, 한류스타 콘서트, 한·일 관광교류 페스티벌 개최

한국관광공사와 영남권 지자체가 일본 관광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경성권 본부는 최근 서면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지자체 및 지방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일본시장 판촉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한 일본 관광객은 지난 몇년 새 연화 약세와 한·일 간 정치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일본 관광객을 주력으로 하는 부산 등 동남권 관광연계의 타격도 심각하다.

2012년 352만 명이던 방한 일본 관광객 수는 2013년 275만 명, 2014년 228만 명, 지난해에는 18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부산 방문객 수도 2012년 60만 2천 명에서 지난해 37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관광객의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관광객 유커(遊客)들이 부산을 외면하면서 전체 해외 관광객 규모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연화 약세 둔화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

조짐을 보이는 올해 일본 관광객에 대한 대대적인 유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오는 2월 중 일본 도쿄에서 한류스타 콘서트, 패션쇼, 한식 등 K-컬처를 테마로 한 한·일 관광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과 지방 간 무료 셔틀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남권 지자체 관계자들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간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 일본시장 공략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영남권 전체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도 함께 펼쳐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또 관광공사와 지자체들은 양국 지자체 간 동호인 교류 확대 등 올해 일본 지역 대상 주요 전략사업과 공동 추진 등을 논의했다. 한국관광공사 정몽준 부산·울산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동남권이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올해를 일본시장 부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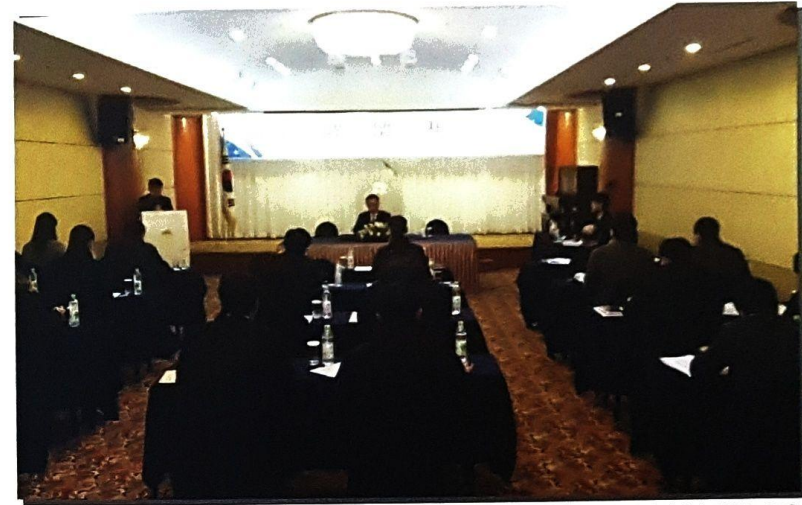
# 부산시 관광협회, 2016년 업종별 대표자 전체회의 개최

부산시 관광협회는 2016년 업종별 전체회의를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업종별 분과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9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국내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에서 장순복(주)대륙항공여행사 대표가 선출됐다.



국내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 위원장 : 장순복 [(주)대륙항공여행사 대표]

지난 21일 일반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에서는 강준구(주)진성관광여행사 대표가 선출됐으며,  
1월 25일 부산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외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에서는 서학영(주)동방여행사 대표가 선출됐다.



일반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 위원장 : 강준구 [(주)진성관광여행사 대표]

## 부산시 관광협회-엘리트치과병원, 의료협약(지정병원) 체결

부산광역시 관광협회(협회장 이태섭)와 엘리트치과병원 (대표원장 이순신)이 지난해 12월3일 관광협회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협약(지정병원) 체결을 맺고 관광협회 및 협회회원의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기로 했다.

이번 의료협약(지정병원)체결은 부산관광발전과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협회와 강한 경쟁력을 갖춘 부산관광업계의 화합과 내실을 다지기위해 기획되었다.

협약체결을 통해 관광협회 및 회원사의 임직원 및 가족이 지정병원을 내원할 경우 각종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엘리트치과병원은 이들의 치아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의료관광관련부문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부산관광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국외여행업 대표자 전체회의 위원장 : 서학영 [(주)동방여행사 대표]



또 1월 26일 관광호텔업 대표자 전체회의에서는 김성한롯데호텔부산 대표가 선출됐으며, 1월 28일 광안동 게스후? 레스토랑에서 열린 관광식당업 대표자 전체회의에서는 문영훈미동암소정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2015년도 사업실적보고가 있었으며 의결사항으로는 2016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업종별 위원회 위원단장 개선의 건, 업종별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있었다.



관광호텔업 대표자 전체회의의 위원장 : 김성한 [롯데호텔부산 대표이사]



관광식당업 대표자 전체회의의 위원장 : 문영훈 [미동 암소정 대표]

##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맞아 '외국관광객 보고 먼저 웃자!' 광복로에서 미소+친절 캠페인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가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구 광복로에서 미소+친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 김은숙 중구청장, 이태섭 부산관광협회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등 관광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광복로 일대 골목골목을 청소하고 나서 광복로와 국제시장 상가를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필요한 요령과 인사말 등을 담은 소책자를 나눠줬다. 이번 캠페인은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미소와 친절로 맞이하도록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크루즈선이 230차례

부산을 찾아 70만명이 몰려 온다"며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할 목표로 원 아시아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자원벨트 조성

###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부산시가 예산 약 1조 원을 투입해 근현대 역사문화관광 자원벨트 조성을 하겠다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정책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한국전쟁 시기 피란수도인데다 1876년 개항 이후 근대사의 출발지로서 부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관광벨트로 엮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난을 극복했던 부산에서의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국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부산 관광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계획은 개항 15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 기초 조사를 맡겼고, 오는 3월 조사가 일단락된다. 이후 시는 올해 약 10억 원 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맡길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부산시의 관광벨트 구상은 피란수도지구(원도심, 대청로), 개항역사지구(남·북항, 초량, 영도), 해양역사지구(북항, 동천 등) 3갈래다. 피란수도지구는 2019년까지, 개항역사지구는

2022년까지, 해양역사지구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피란수도지구 사업에 4천억 원, 나머지 지구에는 3천억 원씩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피란수도지구에 트램형 버스 등 연계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사·발굴된 문화자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광개발추진단 관계자는 "3월 중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부산의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 ▶ 피란수도지구 - 원도심, 대청로 중심 근대문화유산벨트 2017~2019년 (4천억원)
- ▶ 개항역사지구 - 남·북항, 초량, 영도 중심 문화유산벨트 2020~2022년 (3천억원)
- ▶ 해양역사지구 - 북항, 동천 중심 해양역사문화유산벨트 2023~2025년 (3천억원)



## 해수부 자성대부두 일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 상업·관광·주거·해양산업 시설로 복합화해 개발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와 낙후된 주변 지역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콤팩트 복합도심인 '부산항 시티'(가칭)로 탈바꿈한다. '콤팩트 복합도심'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업·업무·관광·주거·해양산업 시설을 복합화해 개발하는 것이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실어 주는 개발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항 시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부산항 시티'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은 자성대 컨테이너부두(74만8천㎡)와 부두 배후의 낙후된 범일5동 일부 37만7천㎡를 포함한 112만5천㎡이다. 해수부는 상업·관광·주거·해양관련 업무시설이 복합적으로 밀집된 고밀도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항 시티' 사업계획은 자성대부두 일대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과 주변의 국제여객부두와 크루즈부두, 부산역 등 국제관문으로서 입지 특성을 활용해 콤팩트 복합도심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배후지 노후 주택가에는 교육·문화·의료 등 주거기능을 도입해 국내외 관광객과 주민이 한 데 어울리는 정주형 도시로 개발한다.

'부산항 시티' 사업을 통해 자성대부두 일대가 콤팩트 복합

도심으로 새롭게 변모하면 북항재개발 지역의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동·서구 등 원도심지역까지 개발 효과 영향으로 부산이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쟁력을 갖춘다. 이와 함께 '원도심~북항 재개발 1단계~재개발 2단계~서면~부산국제금융센터'를 잇는 새로운 도심 축을 형성한다.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거기능이 미약해 정주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온 북항 1단계 개발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전문가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 정책 심의회 등을 거쳐 자성대부두 재개발 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착공은 2019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조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연간 33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6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원도심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 거점공간' 조성 청사진 나와 원도심-부산역-북항 연결... 부산역 광장 매력적이고 친숙한 공간으로 단장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최근 부산역 창조경제 거점공간 조성 국제설계공모 최종 심사를 벌여 일본건축그룹 '니켈 세케이'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사는 최종 후보 3개 작품을 대상으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대학생,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 제해성 아주대 교수, 마사이 고바야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우동주 동의대 교수, 조재우 부산대 교수 등 심사위원은 3개의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선작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이 기존 부산역과 조화를 이루고 부산역 광장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도심·부산역·북항 재개발지역의 연결을 간결하게 처리한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부산역 광장을 매력적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새 단장하고,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리운지'를 조성해 시설운영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또 공간모듈 단위의 개발방식을 적용해 기술적 연구를 통한 단계 개발이 쉽도록 한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역 창조경제 거점공간 설계작품 설명회를 지역주민,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열고, 우선 사업구간을 정해 2월께 실시설계 계약

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역 창조경제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다. 부산역광장을 포함해 동구 초량동 일대 3.12㎢를 관문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모두 13개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 등 500억원이다.



부산역 창조경제 거점공간 작품

## 부산역~국제터미널 잇는 환승센터 내년 착공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의 환승센터가 2017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환승센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3월 말까지 공모 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받은 후 3월 21일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4월 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승센터 1층에는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등 환승시설이 들어서고 2층 옥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결하는 보행 뚝과 연결된다. 건물 높이는 80m, 건폐율(전체 부지에서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층부 80%(3층 이상은 25%),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전체 건축 면

적 비율)은 400%로 제한된다. 환승센터는 보행 뚝을 통해 부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데다 국제여객터미널, 방승사 등이 들어설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 공원과 인접해 있어 향후 북항 재개발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

한편, BPA는 1천100여억 원을 들여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결하는 보행 뚝을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2017년에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보행 뚝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돼 부산역에서 환승센터와 국제여객터미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 시설 등을 갖춰 세계적인 명물로 만든다는 게 BPA의 계획이다.



# 김해국제공항 개항 40년, 부산신항 개장 10년

세계도시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해 부산 올 한해 하늘길·바닷길 크게 넓혀



올해는 김해국제공항 개항 40년, 부산 신항 개장 10년을 맞는 해이다. 부산이 세계도시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해 올 한해 하늘길과 바닷길을 크게 넓힌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의 초석을 단단히 놓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도시대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한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1천238만명에 달해 2년 연속 여객 1천만명을 돌파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저비용항공사의 잇따른 신규노선 취항 등으로 여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4년 실시한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이 오는 2023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6월에는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하고 소음 없는 부산 가덕해안에 국가 제2관공항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산의 힘'을 최대한 모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를 부산의 원대한 꿈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큰 걸음을 내딛는 원년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부산사람의 몫'이다.

부산항도 올해 동북아 물류 및 크루즈 허브항 위상을 넓히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다.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자성대 일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구상이 첫 걸음을 내딛고, 연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2천만개 시대를 연다.

올해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아 크루즈항만의 입지도 한층 단단히 다진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선인 '퀀텀 오브 더 시즈' 호를 비롯해 26척이 226차례 부산을 찾을 예정. 크루즈선을 타고 올 관광객은 45만명(승무원 포함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2014년 24만5천명,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16만3천명으로 주춤했다. 올해가 크루즈 중심도시 부산 만들기의 원년인 것이다.

BPA관계자는 "기항하는 모든 국제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30% 할인과 함께 크루즈 전용 CIQ 건설 등을 널리 홍보한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와 BPA는 지난 2014년 크루즈 모항유치를 위해 로얄캐리비안사와 공동으로 '기업 차터 크루즈 유치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 부산 마이스 산업 올해 메가톤급 국제회의 유치로 순항 전망

벡스코(BEXCO)는 최근 성장세인 부산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이 지난해에 이어 메가톤급 국제회의가 올해도 속속 유치돼 전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마이스의 중심인 벡스코(BEXCO)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에도 벌써 굵직한 대형 전시회와 1천 명 이상 참석하는 '메가급' 국제회의도 속속 유치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건이었던 벡스코 주관 대형 전시회가 15건으로 늘었으며,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국제모터쇼와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가 올해 예정돼있고, 새로 선보이는 전시회도 3건이 추가됐다. 이 중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을 주제로 한 '2016 드론쇼 코리아'는 1월 28일부터 3일간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DJ사와 국내 완구용 드론의 선두주자인 바이로봇 등 국내외 45개사, 350부스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농업·재난방지·항공촬영·물류 등 민수용까지 최신 드론 100여 기종이 선보여질 예

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부산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시회도 오는 10월 처음 열린다.

대형 국제회의는 5월~9월에 집중돼있다. 또 5월에는 15개국 1천500명 규모의 국제미래가속기 학술대회와 70개국 2천 명 규모의 세계수산화회 학술대회가 열리며, 6월에는 30개국 1천 200명 규모의 약물유전체 국제회의가, 8월에는 33개국 2천 500명 규모의 국제진공학회, 50개국 1천500명 규모의 세계대기보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9월에는 30개국 2천500명이 참석하는 세계자동차학술대회가 확정 됐다.

벡스코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총 1천162건의 행사를 개최, 29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 부산 2030등록엑스포 개최의사 밝혀

산업연구원 "부산 교통 관광 인프라 엑스포 최적지"

부산시가 관광객 유입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발전 국제교류를 증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부산 2030 등록엑스포 개최 의사를 밝혔다. 시는 최근 서울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시와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공동추천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등록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BIE의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과 케르켄테 사무차장을 비롯해 환 코레아스 엑스포 주제 개발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태동 부산시의회 의장, 조성재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오거돈 대한민해양연맹 총재,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출향인사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이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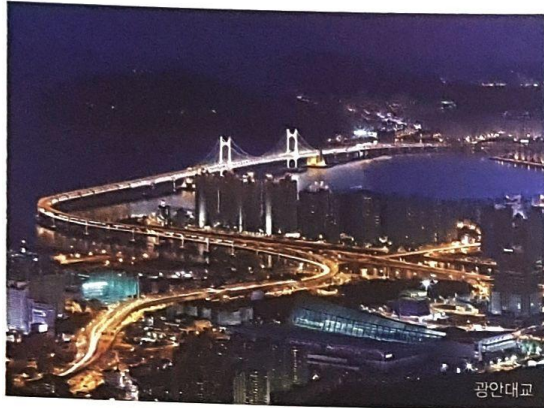
제발표를 통해 부산이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도, 미래 도시발전 잠재력, 입지적 우수성 등에서 등록엑스포 개최 최적지라고 밝혀 유치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 소장은 "부산은 동남권 1천만 인구나 국내 관광객 4천만명을 아우르는 충분한 수요 기반과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잇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 풍부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두루 갖췄다"며 "부산의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동남 광역경제권 활성화,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동남권 파급효과 확산 측면에서 등록엑스포 개최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 즈음이 되는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를 유치해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부산·김해·양산 연계 협력 시티투어 사업추진

부산-바다·호텔·인프라, 김해-수로왕릉·가야문화, 양산-통도사, 자연 환경 상호보완,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시너지효과 기대



관안대교

‘부산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의 하나로 부산과 경남 김해, 양산을 아우르는 시티투어 사업이 추진된다. 김해시는 부산 양산과 함께 부산중추도시생활권 선도 및 연계협력 사업으로 공동 시티투어를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중추도시생활권에는 3개 도시 외에 울산 울주군도 포함돼 있지만, 울주군은 지역 사정에 따라 공동 시티투어 사업에서 빠졌다.



김해 수로왕릉

이 사업은 3개 지역 대표 관광지와 연계성이 높은 구포역~김해공항~울속도생태공원~수로왕릉~대성동 고분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김해가야테마파크~황산문화체육공원~양산타워~양산시립박물관~통도사~화명생태공원~구포역 코스를 버스나 타

고 둘러보는 게 주 내용이다. 부산의 바다와 호텔 인프라, 김해의 수로왕릉을 포함한 가야문화, 양산의 통도사를 비롯한 자연환경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면서 매력적인 관광코스로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자치단체는 관광객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앞으로 공동시티투어와 낙동강 뱃길 복원 사업을 연계해 버스와 뱃길의 환승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과 김해, 양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낙동강 뱃길 복원 사업은 오는 2017년 말 이후 3곳의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의 ‘2015년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공동 시티투어를 위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31억 원(국비 21억 원 포함)을 들여 지상 1층과 이층 버스 4대를 사들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위는 2월 중 전국의 권역별로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양산 통도사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부산중추도시생활권 도시들이 신청한 다수의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시티투어를 공동 사업으로 정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티투어를 통해 외국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부산과 관광사업을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김해의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 미포어촌계·우동어촌계·민락어촌계-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 산·학·민 업무협약 체결

세계적인 어촌관광 레저 도시 거점 만들 것

부산지역 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등 3개 어촌계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과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및 (사)FEE-KOREA와 함께 세계적인 어촌관광레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산·학·민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해운대와 광안리에 있는 3개의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하여, 해파리제거 및 불가사리 제거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하여 생업인 미역 양식장의 포기과 연안정비사업 및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

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하여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시설협회와 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학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어민들과 함께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올해 안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

해수욕장 기능 개선돼 관광객들도 더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 추가 모래 공급으로 올 연말에 현재 해변 폭보다 배 가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국·시비 13억 5천만 원을 들여 모래 2만 6천557㎥를 추가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모래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안정비 사업에서 예산 3억 원을 들여 모래 4천443㎥ 투입을 완료했다.

현재 백사장 공사 진행률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올 연말에는 20~24m였던 기존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너비가 40~50m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과 견줘 모래 유실 정도가 우려스러운 정도로 심각했다. 국토부가 2013년 공개한 국내 주요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은 2011년 백사장 면적이 8만㎡가 넘었지만 2012년 5월 조사 때는 7만 5천660㎡로 줄었고, 10월에는 이보다 더 축소돼 7만 4천240㎡로 나타났다.

수영구 관계자는 “올 연말 백사장 폭이 예전처럼 복원되면 해수욕장 기능이 개선돼 관광객들도 더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 등대콜 맞춤형 관광 택시 운행

## 등대콜 택시기사 가운데 관광해설 교육을 받은 400명이 참여

부산시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등대콜 400대의 관광택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관광택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우선 자유롭게 부산을 여행하고 싶은 이들은 시간임대제(1시간 2만 원, 5시간 8만 원, 10시간 15만 원)를 이용하면 된다. 이럴 경우 택시 이용 시간만 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관광객이 원하는 코스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

두 번째는 9개 코스로 구성된 관광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관광코스 9개를 이용하고 시간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관광 코스는 ▷바닷가 갤러리 ▷영화 주인공 되기 ▷사랑과 영혼 따라잡기 ▷명상과 휴식 ▷세계 유일 UN공원 그리고 평화 ▷용의 귀환 ▷리버사이드(야경) ▷그린워킹(야경) ▷마린시티(야경) 등이다. 관광택시에는 등대콜 택시기사 가운데 관광해설 교육을 받은 400명이 참여한다. 등대콜센터(051-600-1004)로 예약신청, 콜센터에서 관광택시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

은 홈페이지(ddcall.c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올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고급택시와 13인승 이하 대형합체택시(택시)로 관광택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급차를 이용해 분위기를 내고 싶은 관광객과 단체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택시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 시간 운영제       | 9개 주제 코스 신역제  | ● 출발·회차지에 따른 요금 달라질 수 있음 |
|--------------|---|--------------------------|
| 1시간<br>2만원   | 1 바닷가 갤러리 - 부산시립미술관-해운대-일사포-달맞이 고개<br>2 영화 주인공 되기 - 해운대-리버사이드-원시수도기념관-비프광장-상해거리<br>3 사랑과 영혼 따라잡기 - 해운대-해동유공사-기림도예관-광안리  |                          |
| 5시간<br>8만원   | 4 명상과 휴식 - 해운대-범어사-허정형<br>5 세계 유일 UN공원 그리고 평화 - 해운대-UN기념공원-부산박물관-용화사<br>6 용의 귀환 - 해운대-누리마루-해동유공사-자갈치시장-용두산공원<br>7 리버사이드 야경관광 - 아미산전망대-다대포-국제시장-부산 타워<br>8 그린 워킹 야경관광 - 동백섬 산책로-문현로드 산책-송정역도공원<br>9 마린시티 야경관광 - 아미산전망대-활판산봉수대-광안리 해수욕장 |                          |
| 10시간<br>15만원 |   |                          |

“  
부산 명소와  
맛집을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택시!  
”



# 서부산 관광 개발 본격화로 동·서 균형 발전 추진

## 시 서부산관광 활성화 위해 관련 예산 편성

동부산권에 치중했던 부산의 관광산업에서 서부산권의 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 '동서 균형발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서부산권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저렴한 가격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투어상품을 1~2월 2개월간 지역 여행사인 부산여행특공대와 공동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부산권 투어는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당일 관광 상품으로 낙동강 생태탐방선 뱃길체험(화명~물곡)이 핵심인 '낙동강 뱃길코스'와 기후 변화체험교육관의 지구환경체험 및 화명수목원 숲체험을 하는 '그린코스' 두 가지로 구성됐다. 각 코스에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을숙도 생태탐방 △아미산전망대 낙조 감상 △송도해수욕장 스카이워크 등도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체험관과 화명수목원, 화명생태공원 등은 부모와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특화했고, 생태탐방선과 송도스카이워크 등은 연인과 친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공사는 또 내년부터 석불사, 부산어촌민속관, 문화예술플랫폼B, 강서구대저동촌채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다대포 낙조분수, 물운대, 가덕도포진지 등 25곳의 추천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부산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서부산 대개발'과 맥이 닿아 있다. 시는 올해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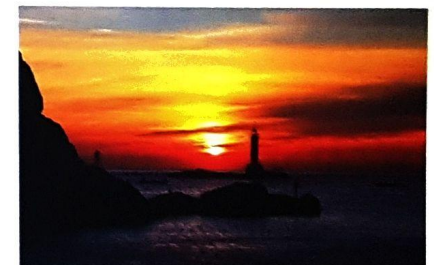
# 다대포 해변 자연습지·생태관광지로 단장

## 물운대~해변공원~해수욕장~생태탐방로~노을 마루길~낙동강 하구~아미산전망대로 이어지는 생태관광길 생겨

사하구 다대포 자연습지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해변의 드넓은 자연습지를 가로지르는 생태탐방로가 길을 열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갈대숲의 운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대포 자연습지 생태탐방로는 일몰 감상 장소로 유명한 노을정에서 다대포 해변공원 중앙주차장에 이르는 길이 653m 폭 3~20m의 나무 길. 장마철이나 만조 때 침수되지 않도록 100년 강우량을 조사하고 만조 수위를 고려해 만들었다. 찾는 이들을 위한 쉼터와 경관조명까지 갖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사하구는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변 자연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대포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일환으로 22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다. 다대포해수욕장 해변은 수십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자연습지와 백사장, 모래톱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일몰 광경을 자랑해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로 꼽히는 곳.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특성상 재첩, 엽낭게, 조개, 해수식물 등이 풍부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부산에서 유일하게 모래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어 지난 2012년부터 생태체험 학습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구는 해수욕장 기능을 잃어가던 다대포해수욕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307억8천900만원을 들여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벌여왔다. 이번 자연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물운대~다대포 해변공원~다대포해수욕장~생태탐방로~노을마루길~낙동강 하구 아미산 전망대로 이어지는 생태 관광길이 생겼다. 따라서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이 개통하면 이 일대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 5,500명 탄 퀀텀호 새해 첫 입항, 올해 70만 명 방문 예상 부산시장, 부산관광공사사장, 부산관광협회회장 등 입항 축하기념패, 꽃다발 증정식



부산시는 2016년도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3배 늘어난 7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시권으로 들어온 부산 모항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과 함께 크루즈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감만부두를 통해 새해 첫 번째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호'가 관광객 4천여 명과 승무원 1천500명 등 5천500여 명을 태우고 입항했다.

퀀텀호는 로얄캐리비안 인터내셔널(RCI) 선사 소속 16만7천800 규모의 초대형 선박으로 중국 상하이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을 방문했다.

시는 새해 첫 입항하는 크루즈선 관광객들을 위해 한복체험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함께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연주와 대권도 공연·사물놀이 등 환영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 박충식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이태섭 부산관광협회 회장 등이 나서서 퀀텀호 선장에게 입항축하 기념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4천여 관광객들은 이날 해운대 해수욕장과 누리마루, 태종대, 자갈치시장 등을 둘러본 후 오후 6시 중국 상하이로 되돌아갔다.

부산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크루즈선 관광객이 23만 명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크루즈선이 모두 226회 입항해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부산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Seatrack Cruise Asia 2016(크루즈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및 설명회 등을 전개해 크루즈 모항도시로서 부산의 위상과 크루즈 관광 도시의 매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크루즈 조례안은 크루즈 산업은 물론선용품과 선박수리 등 연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구성과 부산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현 기자

## 국제여객터미널 첫 '크루즈 모항' 유치

부산항 북항에 새로 문을 연 국제여객터미널을 모항으로 하는 첫 크루즈선이 지난 11일 입항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모항으로 입출항하는 첫 크루즈선은 울타 국적의 7만2천여명 스카이스미 골드 에라호로, 강원도 동해항에서 지난 7일 1천8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하선 시킨 후 한국인 관광객 750명을 태우고 출항해 일본 나가사키 등을 경유, 1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다.

크루즈 모항은 부산항에서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내리는 것으로 승객들이 부산시내에서 관광과 쇼핑, 숙식을 함께 하게 됨에 따라 잠시 들르는 기항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산항에는 이번에 입항하는 스카이스미 골드 에라호 외에,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5~6월 4회에 걸쳐 모항으로 출발 예정인데다 크루즈 성수기인 7~9월까지 부산항과 일본 카나자와 등 4개 항만을 기항하는 준모항이 12회 예정되는 등 부산항 크루즈 모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부산항 크루즈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기항하는 모든 국제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 시설 사용료 30% 할인과 함께 크루즈 전용 CIO(통관구역) 건설 및 5월 아시아 최대 국제크루즈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 부산-제주-후쿠오카-나가사키, 한·일 연안 4개도시 잇는 부산모항 크루즈선 운항

오는 2017년 한일해협연안(부산-제주-후쿠오카-나가사키)4개 시도를 오가는 크루즈가 운항될 전망이다. 이는 부산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첫 크루즈 상품으로 승객이 부산에서 승·하선함에 따라 숙박과 체류로 이어져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산 크루즈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부산시와 제주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관계자는 지난 달 후쿠오카에서 2017년 운항을 목표로 부산-제주-후쿠오카-나가사키를 운항하는 크루즈 상품에 관해 협의했다.

현재 중국 상하이와 톈진을 모항으로 부산 등 2개 도시 이상을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있지만 한일해협연안 4개 시도를 운항하는 크루즈선은 없다. 특히 부산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은 인센티브 관광 등에 한정돼 있고 정기선은 전무한 상태. 이에따라 시는 4개 시도 크루즈 운항에 앞서 오는 7월에 취항 예정인 부산을 준모항(準母港)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상품은 일본 후쿠오카를 모항으로 마이즈루-가나자와-사가

이미나토-부산-후쿠오카를 오가는 상품으로 5박6일 코스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기존 크루즈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부산을 비롯한 해당 도시에서 승선과 하선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이들 5개 도시는 지난 10월 가나자와에서 '5개도시 연라회'를 발족한데 이어 1일 2차 연라회를 갖고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상품을 최대한 활성화시킨다면 한일 크루즈 시장 확대에 이어지게 되고, 결국 2017년 한일해협 4개 시도 정기 크루즈 운항 상품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산시는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2개 업체가 국적선 취항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로 개설때 한일해협 4개 시도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석 우선 배정과 모항지원금, 국내 크루즈 수요 창출을 위한 이벤트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국내 유일 '일제강제 동원 역사관' 개관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 내 위안소, 탄광 등 기록·유품·증언 전시



광복 70년 만에 건립된 국내 유일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개관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대일항쟁위)'와 부산광역시가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에 세운 이 역사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추도공간이자 기념시설, 대일 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고, 그 진상 규명과 성찰을 통해 성숙한 역사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설이다.

대일 항쟁위는 세계인권선언일인 지난해 12월10일에 맞춰 일제강제 동원역사관을 개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 강제동원의 잔혹한 역사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 등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역사'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겠다는 뜻도 있다.

국내 유일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부산에 자리를 잡은 배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조국을 떠났던 조선인들이 마지막으로 밟은 땅이자 광복 이후 '해방 귀국선'을 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밟은 땅, 태평양 전선과 일본군 위안소, 지옥 같은 하시마섬 탄광에서 수많은 목숨이 스러졌지만, 약삭같이 살아남아 광복을 맞은 사람들이 돌아와 열싸인고 '아리랑'을 목 놓아 불렀던 곳이다.

그들 중에는 부산 산복도로에 핀자집을 짓고 부두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며 터전을 잡은 사람들도 많다. 또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들어선 남구 대연동 일대에는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비롯해 UN평화 기념관, 평화공원, 부산박물관 같은 역사시설이

밀집해 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전쟁과 침략이 야기하는 '아픔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국비 431억원, 시비 91억원 등 총 사업비 522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착공, 지난해 5월 준공했다. 7만5천 465㎡부지에 연면적 1만2천62㎡의 지상 7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서고, 멀티미디어실, 도서실, 연구실, 추도공간 등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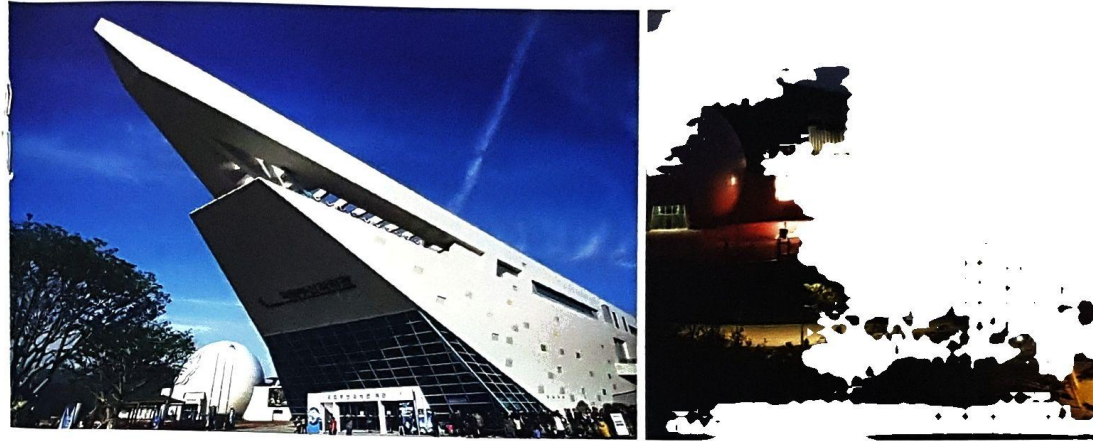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실은 4~6층에 있다. 4층 전시실은 일제강제동원의 시작 및 실제, 광복과 귀환, 끝나지 않은 일제강제동원, 기억의 터널 등 7개의 주제별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강제동원 관련 각종 기록물과 유품, 기증품 등 192건 354점을 전시하고 있다. 대부분 대일 항쟁위가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기증 받거나 직접 수집한 자료들이다. 5층 전시실은 강제동원의 과정, 조선인 노무자 숙소, 탄광, 중·서부 태평양 전선, 일본군 위안소 등 당시 '고통의 현장'을 생생히 재현했다. 관람객들은 이 같은 강제동원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소 옆 벽면에는 생존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97살경남 통영)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강제동원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결코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진혼의 다리'도 설치돼 있다.

6층은 기획전시실로 시기별 주제를 정해 다양한 자료와 유물 등을 일정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나라 잃은 백성이 당해야 했던 수모와 고통, 그리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민족저항의 역사가 모여 있는 곳이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김대현 기자

## 동남권 과학교육장 '국립과학관' 개관

동부산관광단지내, 자동차·항공우주·선박·의학체험형으로 구성



부산·울산·경남지역 과학교육의 요람이 될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총 사업비 1천217억원을 들여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안 11만3천107㎡부지에 건립됐다. '과학의 바다로 향해'라는 주제로 거대한 삼각형 뱃머리를 형상화한 4층 과학관 건물과 구 모양의 천체투영관, 야외전시장, 물놀이장을 갖춘 사이언스파크, RC(Radio Control)카 레이스장, 캠프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원자력·과학, 에너지산업을 주요 주제로 180개의 과학전시물을 선 보이고 있다. 전시물의 82%인 148개가 기초과학의 원리와 첨단 기술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놀면서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대한 '과학 놀이터'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물 1층에는 어린이관이 먼저 반긴다. 이곳은 취학 전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에 자극이 되도록 100% 놀이를 통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전시물로 구성돼 있다. 홀에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원형 통이 눈에 띈다. 사이포트 슬라이드(SciPort Slide)라 불리는 이 시설은 관람객 스스로가 이동물체가 되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곡선 값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시설이다. 메인 전시관은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1관은 자동차·항공우주관, 2관은 선박관, 3관은 에너지·방사선 의학관이다. 자동차·항공우주관은 고대인들이 발명한 바퀴를

시작으로 엔진과 자동차의 진화, 항공,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를 다양한 전시물로 보여준다. 달의 중력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월면 걸기' 체험시설이 특히 인기를 끌 전망. 선박관은 과학과 기술, 수학과 해양과학을 연계한 각종 체험 전시물로 구성했다. 입구에 거대한 코끼리 모형 '코니'(무게 3.5t)가 인상적인데, 부력과 선박의 관계를 알려주는 상징 전시물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실험을 통해 부력의 원리를 익히고, 선박 설계·조립 같은조선공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에너지·방사선의학관은 햇빛과 물, 바람 등 청정에너지의 발달과 활용기술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전시관이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로 암을 치유하는 첨단 방사선의학의 원리도 알아볼 수 있다. 4층의 천체 관측실에는 국내 과학관 중 최대 규모인 직경 360mm굴절 망원경이 있으며, 건물의 뒷부분이 열려 신비로운 우주를 만날 수 있다. 건물 밖 별관의 천체투영관에서는 의자에 120도로 누워 눈앞에 펼쳐지는 지름 17m의 대형스크린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밤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을 찾는 시민·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185번을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 장산역~과학관 구간에 운행한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주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인근 시내버스 정류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또 부산시터뷰버스로 방문하는 코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 팬스타 라이너스 · 현대상선 합작 국적크루즈 선사 출범

여객정원 2,000명, 객실수 1,000실, 7만급 규모 크루즈선 운영

국내 최초로 국적크루즈선사가 출범했다. 특히 이 국적크루즈선사가 부산을 본거지로 내항 크루즈선 및 한-일 카페리를 운영하고 있는 팬스타그룹의 팬스타라이너스와 대기업인 현대상선의 합작 법인 형태로 출범했다.

최근 크루즈업계에 따르면 팬스타라이너스와 현대상선의 합작 법인인 코리아크루즈라인(주)가 지난해 12월 법인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크루즈라인의 최초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며 지분 배분은 팬스타라이너스 53.3%, 현대상선 46.67%이다. 자본금은 향후 최대 800억 원까지 증자 가능하다.

코리아크루즈라인 측은 여객 정원 2000명, 객실수 1000실

을 갖춘 7만급 이상 규모의 크루즈선을 확보하고 시범 운항을 수차례 실시한 뒤 해수부 계획에 맞춰 2017년 초 썸 본격 사업 운항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이미 지난달 부산항을 방문했을 당시 “연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비교적 젊은 선령의 선박 확보, 시범 운항 거쳐 2017년 초 사업 본격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법인이 도입할 크루즈선의 운항 항로는 국적크루즈사업 추진을 위한 테스트포스트(TFT)를 꾸려 준비를 해온 팬스타 측의 기존 계획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항로에 집중한 후 점차 아시아 전체 및 대양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시의회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 마련

우수공예품 관광상품으로 판매, 수출지원

부산시의회는 지난 1일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부산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4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15명 이내의 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예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발굴해

육성하고, 공예 명장을 선정해 지원할 수도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공모전이나 우수 공예품 전시, 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공예품은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손 의원은 “조례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문화예술단지 등 전통 공예문화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역사속으로 사라진 점바치 골목 관광상품으로 되살린다

부산 영도다리 점바치(점쟁이) 골목 재현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중구는 오는 4월까지 남포동 유리리 광장(영도다리와 남포동 건물물 시장 사이)에 ‘점바치 골목’을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바치 골목은 6·25전쟁 당시 영도다리 인근에 형성된 점쟁이 거리다. 영도다리 도개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골목은 되레 역풍을 맞았다. 개발 바람 탓에 임대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가 점바치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가 직접 나서 점집 보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건물주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두곳 점집 할

머니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면서 점바치 골목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구는 기존 점집 골목을 인근 유리리 광장 일대에 재현하기로 했다. 점집 3개(가로·세로·높이 각 2.4m의 파발리온)를 설치하고, 간판과 외벽 인테리에도 원형에 가깝게 만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영도다리는 피란민에게 만남을 약속한 장소로,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안부 등을 점치면서 점바치 골목이 형성돼 애환이 서린 점바치 골목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어 영도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창원 민자도로 완전개통

서부산서 창원 20분 통영·고성 40분 단축

부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민자도로가 완전 개통했다. 이 도로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세산C에서 창원 성산구 완암동 완암C까지 이어지는 22.48km왕복 4차로다.

부산~창원 민자도로는 지난 2009년 2월 공사를 시작, 2013년 10월 완암C~울해C 17km구간을 먼저 개통했다.

나머지 구간 울해C~세산C 5.4km를 이번에 완공해 개통한 것. 울해C~세산C 구간은 2012년 9월 착공했다.

서부산 지역에서 부산~창원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남해고속도로를 탈 때보다 창원까지 20분, 통영·고성까지는 40분가량 운행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부산~창원 민자도로 개통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던 남해고속도로 서부산C~장유C~창원터널 구간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가 남해고속도로 대체도로 역할을 하면서 고속도로

진입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강서구 세산교차로~가락C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창원 민자도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도로인 만큼 유료도로다. 통행료는 소형 1천100원, 중형 1천700원, 대형 2천300원.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주)는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



## 부울고속도 구간단속카메라 6대 설치

부산경찰청 내달부터 본격 운영, 적발땐 벌금 12만 원·벌점 60점

부산울산고속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과속 차량 단속이 강화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울고속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부울고속도로 30km지점인 인양C에서 36.8km지점인 청량C 사이(6.8km) 상하행선 3대씩 모두 6대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벌금 12만 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카메라 설치 구간은 진·출입로나

휴게소가 없는 직진 코스로,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해 차량의 평균속도를 산출, 속도 위반 시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히 카메라가 있을 때 잠시 속도를 줄이는 식의 암체 운전이 더는 어렵게 됐다.

부산에서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거가대교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부울고속도로에는 속도 측정을 한 번만 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3대(상행선 1대, 하행선 2대) 설치돼 있다.

##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변항 월드컵 등대 테마 공원 조성

대변항 월드컵 테마공원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만 정작 등대 외에 다른 볼거리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아 부산해양수산청이 월드컵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등대 주변에 제1회 우루과이대회부터 가장 최근에 열린 제20회 브라질대회까지 역대 월드컵에서 사용된 모든 공인구 모형과 매 대회 참가국과 우승국을 알 수 있게 꾸몄다.

또 역대 월드컵 개최국 주한 대사의 등대공원 조성 축하 메시지와 친필 사인을 전시했다.





## '새들마을'에 선정된 감천문화마을, 살기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부산 사하구 감천2동 감천문화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구는 총사업비 65억 2천500만 원을 확보해 감천2동 감천문화마을을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새들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우선 감천문화마을 회차 공간 조성, 감천~과정 연결도로 개설 등을 진행키로 하고 용역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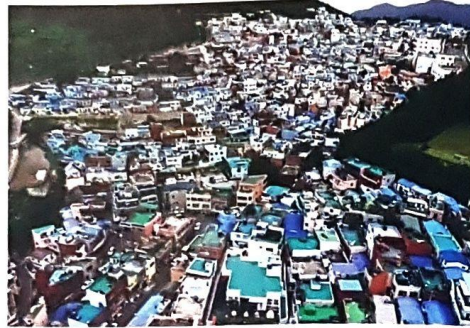
마을 내 회차 공간은 3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그동안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교통 혼잡에 시달려 왔다. 회차 공간은 갈내 어울터 앞 지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불법주차와 차량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마산과 옥녀봉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지 않던 감천~과정 연결도로(300m)도 개설된다. 도로 부지가 확보되고 2017년 말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소방차 등도 감천2동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생활 환경 개선에는 두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 진행

된다. 집수리 사업, 위험 축대 정비 사업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게 구청 설명이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감천문화마을이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주민들은 큰 생활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업 용역이 관광지 감천을 넘어 살기 좋은 감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산복도로 통유리 엘리베이터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등장 안용복부산포개항관~증산공원...동구,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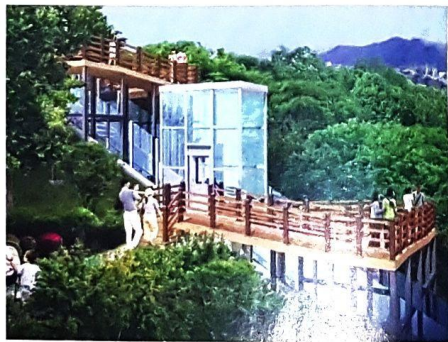
부산 산복도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승강기를 타고 구경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동구는 좌천동 안용복 부산포개항관에서 증산공원까지 높이 96m 구간에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 1월부터 운영된다. 승강기는 통유리 외벽이라 운행 중 산복도로 풍광을 구경할 수 있으며, 전망대와 탑승구를 별도로 만들어 중간에 내리면 산복도로의 경치도 즐길 수 있다. 최대 13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분당 60m 속도다.

동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정발 장군을 모신 정공단과 왜군이 성을 쌓은 증산공원 일대 900m 도로와 벽면을 새로 단장하고 주변에 가마의 게스트하우스, 전망대, 풍경길 등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고지대인 산복도로에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라 이 일대를 오르내리는 노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복도로 관광 코스와 연계한 새로운 명

물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구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 일대 근대 건축물인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 등과 연계해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월드 자리에 6성급 '캠핀스키호텔 부산' 건립

A블럭-지상32층, 326객실, 특급호텔

B블럭-지상39층, 221객실의 레지던스 호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최고급 호텔이 들어선다.

지엘시티건설(주)은 최근 세계적인 최고급 호텔체인 캠핀스키호텔그룹과 호텔 운영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시공사 선정만 끝나면 민락동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캠핀스키호텔이 문을 열게 된다. 호텔의 공식 명칭은 '캠핀스키호텔 부산'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캠핀스키호텔그룹은 1897년 독일 베를린에서 호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6개국에서 106곳의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10대 럭셔리 호텔 브랜드'에 선정되고 있는 캠핀스키호텔은 최고급 호텔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럭셔리 익

스클루시브(Luxury Exclusive)' 등급으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해당 등급의 호텔은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호텔' 뿐이다.

캠핀스키호텔 부산은 A블록과 B블록으로 나눠 건립된다. A블록에는 지상 32층, 326객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조성된다. 이 호텔은 마이스(MICE) 산업 지원시설로 쓰일 예정으로, 대형 마이스 홀 1개, 중형 마이스 홀 2개, 소형 마이스 홀 5개, 비즈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는다. B블록에는 지상 39층, 221객실 규모의 최고급 레지던스호텔이 들어선다. 모든 객실이 복층형 구조와 오픈 테라스로 구성되며, 캠핀스키호텔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엘시티건설(주) 측은 오는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5성급 호텔 건립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5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착공될 관광호텔은 이진종합건설은 "자회사인 (주)아이제이동수가 송도해수욕장 주변인 서구 암남동 123의15일대에 건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하 6층~지상 28층 객실 323실 규모로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

2020년 9월 오픈 예정이다. 대지면적 2만 8천879㎡에 연면적 4만 9천536㎡다. 부대시설로 로비와 프론트, 연회장, 다목적실, 뷔페,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를 갖는다. 1913년 개장해 '동양의 나폴리'로 통했던 송도해수욕장은 1960~1980년대 부산의 손꼽히는 명소였다. 하지만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 밀려 인적이 뜸하다. 개장 100년 만인 2013년 재정비를 거치며 예전의 명성을 회복 중이다. 방문객도 2014년 490만 명에서 지난해 754만 명으로 늘었다.

150억 원대(공유수면 매립비 포함)를 투입해 올해 완공을 앞둔 이 사업은 송도해수욕장 동편 송도1지구(거북섬 테마

공간)와 서편 송도2지구(오션파크)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서구청 측은 "고급 숙박시설 등장으로 관광객 숙박 편의 제공과 함께 송도해수욕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2015 부산 10대 히트상품, 영화 '국제시장' 선정 국내외 관광객 발걸음 이끌며 인기몰이로 상위권에 올라

영화 '국제시장'이 올해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올 한해 부산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제품·시책·인물·행사·건축물 등에 대한 전문가 추천, 지역 언론사 키워드 검색, 선정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2015 부산 10대 히트상품'을 뽑았다.

올 부산 10대 히트상품에는 영화 '국제시장', 웹 드라마 '떴다! 홍표쌤',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부산과학관 개관, 김해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1천만 명 돌파 등도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부발연은 히트상품을 통해 본 올해 부산의 상징 키워드는 '열정' '도약' '재생'이라고 밝혔다. 올 부산 최고 히트상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영화 '국

제시장'은 부산 출신의 윤재근 감독이 연출했다. 1천426만건 582명의 누적 관객을 동원해 '명량'에 이어 역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배경이 된 '꽃분이네 가게' 등 국제시장 역시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역 문화콘텐츠발굴·제작 지원 사업인 '스타프로젝트'에 선정돼 웹 드라마로 제작된 8부작 어린이청소년드라마 '떴다! 홍표쌤'은 부산 MBC와 대교어린이TV에 방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지역 TV제작사인 '부산 아트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교육용 솔루션 성장 드라마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온 부산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도 히트상품으로 주목 받았다.

## 오륙도 스카이워크 전국 유명 관광지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

한국관광공사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관광지 중 최고 인기 코스였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1% 증가, 전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 63곳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해 100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감천문화마을과 삼진어묵 등에 이어 스카이워크까지 '100만 관광지' 대열에 오르는데 대해 해수욕장이나 원도심 등 전통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부산 관광의 패턴이 재편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부산시 관광협회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관광부산 편집실에서는  
관광숙박업·여행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관광편의시설업  
회원사 여러분의 관광에 대한 소중한 의견 등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관광부산 편집실 : btjbusan@hanmail.net

## 광안리어방 축제 '2016년 유망축제' 지정 동래읍성축제는 3년 연속 지정, 관광진흥기금·홍보 등 혜택

광안리어방축제가 정부가 선정하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에 지정 됐다. 동래구와 수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3년 연속으로 지정됐으며, 광안리어방축제는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축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게 됐다. 반면 첫 진입을 노렸던 낙동강구포나루축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문체부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선정위원회와 현장평가를 통해 총 43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등급(대표·최우수·우수·유망)에 따라 총60억 원의 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은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이 지역만의 역사와 전통으로 차별화한 창의적·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안리어방축제는 어민과 수군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어방'이라는 주제의 특이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동래읍성, 역사적 상징성 지닌 문화자원으로

1천년 역사를 지닌 부산 동래읍성을 역사적 상징장소로 되살리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동래읍성지역의 재생전략: 1천년 박물관의 성(城)' 보고서를 통해 동래읍성 일대를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문화자원으로 재생활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동래읍성은 고려 1021년 축조, 부산진성과 함께 임진왜란 격전지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3·1독립운동 때는 동래고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독립만세 걸기를 한 이후 항일학생운동의 상징지역으로 자리잡았다.

박상필 B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동래읍성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헌과 부민(府民)의 항전, 일제강점기 주민들의 항일운동 등 호국충절의 장소로 다양한 기록과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며 "동래읍성 지역은 국가유신이자 부산 정체성의 한 근원지인 만큼, 주민들의 삶과 연

계한 통합적인 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무형의 역사자원이 풍부한 동래읍성 일대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보는 '1천년 박물관의 성(城)'이라는 재생 개념을 도입, 동래읍성 일대를 역사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 부산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로 변신

해운대해수욕장-트리·빛축제·해변 아이스링크장

광안리해수욕장-해변 테라스 영업 관광상품으로 내놓아

부산 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난해 12월 트리 빛축제와 해변아이스링크장을 조성했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특레고시를 제정, 테라스 영업 운영을 허용,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게 됐다. 해운대구는 스케이트장을 사계절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빙판 위에 차양을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면 혹서기 한 두 달을 제외하고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벤트광장에 조성된 높이 16m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구남로 일원의 '해운대 빛축제' 조영대 겨울밤 해운대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수영구는 광안대교가 가로놓인 밤바다 풍경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옥외 테라스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구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레 고시'(이하 특레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특레 고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약 1.1km구간에 자리한 220여 개 업소가옥외 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했다. 이들 점포 가운데 카페 맥집점 등 38개 업소는 이미 테라스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밤바다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행정규제 개혁의 하나로 특레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테라스에 직접 조리기구를 설치하거나 테이블과 의자를 가게 앞노상까지 두고 손님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7개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해양레포츠 메카로

해양레포츠 메카인 부산이 7개 지역 해수욕장에 각기 다른 해양스포츠 종목의 색깔을 입혀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욕장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스포츠를 발굴해 지역 특색에 맞는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돕기 위해 '해수욕장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이나 관광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도 해수욕장에 가면 체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장비 대여와 구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설교육장, 체험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관련 장비 판매점, 숙박 등을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각 종목의 대회 유치까지 이뤄내 사시사철 해수욕장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다.

시는 이미 관련 예산 4억 원을 확보했으며, 다음달에는 해당 해수욕장 구·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특화 방안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해수욕장 관할 구·군청은 각

종목에 맞는 해양스포츠 육성 방안과 함께 사업안을 제시하면 된다. 부산시가 정한 각 해수욕장별 특화 종목은 해운대가 요트와 보트, 광안리가 래프팅과 모터보트, 송정시 서핑과 윈드서핑, 송도가 카약과 윈드서핑, 대대포가 카이트보드와 패들보드, 일광·임랑이 윈드서핑, 수삼오도바이다.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게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목을 위주로 부산시가 정했다.

송정의 경우 동해와 남해 해수호름의 교차지로 동남권 지역 서핑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송도는 국내해양레포츠의 발상지로서 지금도 다이빙대가 설치돼 있어 '도전'을 부르는 해수욕장이다. 넓은 갯벌의 백사장과 수심이 낮고 잔잔한 파도가 특징인 대대포는 연중 일정한 바람이 불어 카이트보드 세계에서는 메카로 꼽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양레포츠를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전국 동호인들이 모여들고,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여름' 부산이 아닌 '사계절'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천혜의 절경 태종대 관광 인프라 적극 활용

호텔, 복합시설, 갈맷길 조성, 자살바위 스카이워크 설치 등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태종대를 개발을 통해 관광 시설로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태종대가 천혜의 절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인 태종대를 기존의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개발을 통해 관광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다음 달 3억 원을 들여 태종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최근 밝혔다. 용역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해 호텔 등 복합시설 건립, 갈맷길 조성, 자살바위 스카이워크 설치를 비롯한 유원지 내 관광 인프라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 태종대 유원지는 명승지라는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광 시설 개발이 제한되면서 시설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보도 바깥쪽에 보행길을 설치해 유원지 일대를 둘러보는 갈맷길을 만들고, 명소인 자살

바위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유원지 입구에 호텔을 건립하고 전망대에도 복합시설을 도입해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오는 3월 말 유원지 전망대 운영권을 부산시설공단에서 부산관광공사로 이관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고급 시설로 재단장한다. 아르피니우스호텔 식음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실내를 리모델링한다. 또 유원지 내 순환열차인 다누비 외에도 30인승 중형버스 3대를 시티투어 버스로 투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6개 매점을 철거하고 2억 원을 투입해 2, 3개의 현대식 매점으로 재편하고 노천카페 조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관광 인프라 활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국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송도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올 3월 착공, 내년 3월 완공,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

송도해수욕장의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3월 착공될 예정이다.

부산 서구는 민간사업자인 (주)송도해상케이블카가 총 사업비 812억 원을 투입, 오는 3월부터 해상케이블카 복원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해상케이블카는 송도 송림공원과 암남공원 사이 1.62km 설치된다.

1988년에 철거된 옛 해상케이블카 보다 운행 거리를 4배 가까이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과거 철거된 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에서 송도스포츠센터까지 420m 구간을 다녔다. 탑승객들은 송도해수욕장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바다 위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케이블카에서 송도해수욕장은 물론 암남공원, 진정산과 장군산, 남항, 영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13년부터 서구가 추진하던 송도해수욕장 4대 명물(해상케이블카 해상다이빙대 구름다리 포장유선) 복원사업의 일환이며, 해상다이빙대는 2013년에 복원됐다.

송도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590억 원에서 총돌방지구 설치와 암남공원 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이전 등으로 사업비가 812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8월 (주)송도해상케이블카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오는 3월에야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가 복원되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해 송도해수욕장의 옛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 반갑다 겨울애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 가족여행!

따뜻하고 즐거운 가족 연인들의 겨울 스키 여행, 신비롭고 황홀한 일루미네이션 빛의 스파로 변신한 오션스파 씨메르 이용 따뜻한 온수 스파와 수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아외 오션 풀이왕, 연인들에게 꼭 맞는 키즈 케팅 프로그램 진행, 부산의 겨울 바다와 맞닿은 부산의 이곳 저곳을 여행하는 LEO(레오) 투어 프로그램, 설연휴 기간동안 킴프 및 민크 놀이 체험 이벤트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일루미네이션 패밀리 스파 패키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로맨틱 한 힐링과 즐거운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패밀리 스파> 패키지를 선보인다. (2016.02.01 ~ 2016.02.29) 혜택은 객실 1박과 신비롭고 황홀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단장된 '빛의 스파 오션 스파 씨메르'와 환상적인 오션뷰와 함께 한 겨울에도 따뜻한 온수 스파와 수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아외 오션 풀이왕, 독일 명품 원목 키즈 교구 'HABA' 키즈 전용 라운지, 단일 공간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콘솔 게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존, 반짝이는 부산의 광안대교 및 야경 및 광복동 맛집 투어 등 부산의 이곳 저곳을 여행 할 수 있는 LEO(레오) 겨울



투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2/6~9)에는 호텔의 상품과 서비스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전용 비강스 크레딧(VC)을 나눠 드리는 '16년 새해맞이 행복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며 제기차기, 투호 놀이, 연 날리기 등 명절 민속 놀이 한마당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패키지 가격은 21만원부터

### HAERUNDAE GRAND HOTEL

전망 21만원이며, C타입은 스위트룸 1박,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의 4인 조식, 전통한과 2세트 포함 바다전망 45만원이다. (세금, 봉사료 별도 / 토요일인 5만원 추가 / 패키지 기간 동안 2박시 1만원 할인, 3박시 2만원 할인) 한편 구정 기간(2/7-9) 투숙객에게는 사진 요청 시 15시까지 체크아웃 인칭과 1인 5실 한정 비치부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봉사료 별도)

문의 :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 (051) 740-0611

### 웨스턴조선폰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달달한 패키지. 객실내 일본 훗가 이도 로이즈너티바 초코렛 제공. 2월 14일 밸렌타이 투숙시 과일 및 와인 제공 (가격-20만원부터 세금, 봉사료 별도)

문의 : (051) 749-7003

### 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이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피는 따뜻한 설 연휴를 위한 설날 패키지 2016 LUNAR NEW YEAR'S 를 선보인다. 2016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만날 수 있는 설날 패키지의 상품 구성으로는 A타입은 디럭스룸 1박 기준 시내전망 16만원, 바다전망 19만원이며 라운드 전통 한방차 2인과 전통한과 세트가 포함된다.

B타입의 상품은 디럭스룸 1박,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의 2인 조식, 전통한과 세트 포함 시내전망 18만원, 바다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겨울 추위를 녹여줄 스페셜 보드카, 2월말까지 테라스카페 비바라운지, 그레이구스 보드카 프 로모션, 가격-1잔 12,000원, 1방 260,000원

문의 : (051) 743-1234 / 1243

### 롯데호텔부산

#### 먹거리, 패션 넘어 호텔에도 '복고 감성' 롯데호텔부산 "숙박하라 1988 패키지" 판매

롯데호텔부산은오는2016년 2월 29일까지 복고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숙박하라 1988 패키지'를 선보인다.

'숙박하라 1988 패키지'에는 복고풍의 슈퍼리어스위트 할리우드 트윈 객실숙박이 기본으로 포함된다. 이 객실 내에는 슈퍼 싱글침대 두 개가 마련돼 있는데,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1개의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숙박에 더해조식 뷔페 및 호



텔 피트니스 클럽 3인 이용 혜택이 주어지고, 룸서비스로 통닭 및 맥주 3잔을 즐길 수 있다.

호텔은 또 90년대 후반기의 제품 포장을 그대로 재현해 인기 물이 중인 롯데제과의 '응답하라 1988 과자세트' 1세트를 함께 증정한다.

패키지 가격은 주중 기준 27만원(봉사료 및 세금 불포함)부터다.

문의 : 객실예약 (051)510-1100

### 롯데호텔부산 김성한 총지배인, 대표이사로 승진

#### 부산관광협회 호텔분과위원장 등 부산관광산업발전에 기여



롯데그룹은 (주)롯데호텔부산 김성한(상무보·사진) 총지배인을 호텔 대표이사(상무)로 승진 발령했다. 부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대표이사는 1984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장에 입사, 89년 롯데호텔부산으로 전입한 뒤 마케팅실장, 면세점장, 판촉부부장, 영업상무이사 등을 거쳤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그동안 부산관광협회 호텔분과 위원장, 부산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위원 등을 지내는 등 부산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 롯데호텔부산 등 7곳 한·중 비즈니스 인증 받아

롯데호텔부산(대표이사 김성한)은 최근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적연구원에서부터 '한·중 비즈니스 신용인증 플랫폼'(CKA, China and Korea Commerce Credit Authentication)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CKA 인증 사업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고, 교역량이 급증한 것에 대비해 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앞서 부산경제진흥원과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적연구원은 'CKA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롯데호텔부산과 부산관광공사, 누네빛안과 등 부산의 관광·의료 관련 기업 및 기관 7곳이 처음으로 인증서를 받게 됐다.



부산관광...

휴머투어리즘 Humatourism 이 필요하지 않은가?



여호근 교수

-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 경력/(사)한국관광학회 부회장  
(사)한국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
- 현재/(사)한국관광경영학회 편집간사·이사
- e-mail : hkyeo@deu.ac.kr

“우리 부산은 ‘인문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관광’ 이른바 ‘휴머투어리즘(humatourism)’ 과 같은 창조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는 융·복합이라는 단어이다. 이는 융합과 복합의 합성어로서 융합(融合)은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기존의 고유한 성질이 서로 삼투\*되어서 새로운 물질이나 결과를 안겨주는 것’ 이고, 복합(複合)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융합관련 개념에는 ‘복합, 통합, 통섭’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융합은 굉장히 강한 화학적인 결합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통합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고, 통섭은 함께하는 도약하는(jumping together)\*\*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jumping together’의 이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1905년에 제작된 마티스의 「원무」에서 찾을 수가 있다. 마티스의 「원무」는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5명의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서로가 꾸밈이 없이 손을 잡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원무」를 통하여 개별이 아닌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소통의 느낌도 받을 수가 있다. 소통은 우리를 더욱 값지게 하며, 때로는 더욱 강하게도 한다. 일찍이 청경궁(昌慶宮)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홍화문(弘化門)을 통하여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다. 창경궁은 조선 9대 임금인 성종이 1483년(1984년 환궁) 창덕궁의 동쪽에 세운 궁궐인데, 창경궁의 중심부분이 동향이기 때문에 정문인 홍화문도 동쪽으로 세

\*삼투(滲透) :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접할 때 농도가 낮은 쪽의 용매가 막을 통하여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 확산하는 현상 -편집자 주

\*\* 김광현(2009. 03.25). 예술·인문학·과학 기술 융 복합 또는 통합의 개념과 방법. 익산간 융합 분과포럼 발표자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잠시라도 접어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광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워졌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다. 그런데 홍화문은 임금이 친히 나가 백성들과 대면하였던 곳이다. 영조 임금은 1750년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홍화문으로 나가서 양반과 평민들을 직접 만나서 균역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는 물리적으로 엄격히 통제가 되었던 시기에 소통(疏通)을 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였던 좋은 한 예이다.

이렇듯 융·복합과 소통은 잘 활용할 경우에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요소가 발휘하는 결과보다도 강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게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인문학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활용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다. 이렇듯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인문적인 소양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 아닐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스마트(smart)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저장·관리하느라고 조용할 틈이 없다. 집, 업무용 공간, 회의장소, 휴식공간, 커피숍 등에서도 개인용 모바일(mobile)에 손에 잡고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누르기에 바쁘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단 일초만이라도 인문학적인 강좌나 인문학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특정한 기회를 접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문학은 인문주의(humanism)에 근거하고 있다.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값진 학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도 다양한 곳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도심재생 사업들 비롯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인문학의 진가(眞價)는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지속되어 우리 부산이 세계인들로부터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하지만 이제는 융·복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대이다. 휴머니즘을 담은 그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내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존중함을 갖고 있으면서 보이는 현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휴머니즘은 필요할 것이고,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참된 모습과 가치가 있는 요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잠시라도 접어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광’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우리 부산에는 중앙동 40계단 일대와 초량 왜관을 중심으로 한 용두산 공원 일대를 비롯하여 원도심에는 다양한 역사와 흔적들이 잔재해 있다.

이러한 역사와 흔적들을 콘텐츠로 발굴하고 차별적인 스토리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고려한 접근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산관광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인문학(humanism)과 관광학(tourism)이 각기 단절된 상태에서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할 때보다도 융·복합적으로 통합되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함께 도약하기에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부산은 ‘인문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관광’ 이른바 ‘휴머투어리즘(humatourism)’ 과 같은 창조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 겨울北海道 이야기



진성관광여행사 대표 강준구

1988년부터 여행업에 종사하게 되면서부터 술한 외국을 많은 분들과 함께 다녀왔으나 정착 가족과 함께할 기회는 없어 늘 아쉬운 마음 이었는데 딸에게서 겨울 북해도 여행 한번 가면 어떠시냐기에 좋다고 하였다.

우선 딸이 교사라 방학이 아니면 안되기에 부부가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아들내외와 잘 의논하여 날짜 잡으라 하고 일임하였다.

차량은 렌트하여 사위가 운전하는 걸로 하고 외손자(초등5년)와 손녀(5세) 손자(9개월)위 주로 코스를 정하기로 하고 1월7일 출발하여 1월10일 귀국하는 3박4일로 잡고 여권준비와 일정을 준비 하는데 출발전 기상 체크하니 여행기간 내내 눈이 올 것이며 많이 추울 것이라 하여 옷차림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다.

차량이 협소하여 짐크기를 최대한 줄이기로 하나 겨울철에 유아까지 있으니 짐이 많아 질수밖에 없어 우리 내외의 짐이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자손들 모두와 함께하는 이번 여행의 소중함 이야말로 더 표현 할 수 없을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외손자는 어릴때 우리가 키워 정이 많이 들어있는데 손녀와 손자는 이웃에 함께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 하다시피하여 정겹게 대하는데 이따금 만나게 되는 우리내외에게는 늘 서먹하게 대하는지라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많이 주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인데, 아이들도 이따금 전화와서 여행을 앞둔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한다.

일단 눈이 많이 오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여행자 보험도 제대로 준비 하여야 하는지라 항목을 세세히 따져보고 가입 하였다. 두 시간도 채안되는 비행 시간에 도착한 삿쵸로 치도세 공항은 구름속에 간간히 햇빛도 비치고 대지엔 하얀 눈들이 쌓여 있었다.

일본인들의 몸에겐 친철이 익숙한 사위와 나는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는 공무원들이 될 친절한것 같고 표정이 굳어 있는것 같으며 입국수속 마치고 수배 하여둔 렌트카(8인승)받아 와서 후라노로 이동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고 길이 구분이 안되어 스노우 폴(눈 책정 막대)에 의존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방문한 코스로는 요정이 산다는 닝그루 테라스의 높이 쌓인 눈과 함께 긴 코드를 달려있는 나무 집 공방들의 야경이 아주 좋았고, 아사히 야마 동물원에서 펭귄과 함께 라인따라 걸으며 사진촬영과 보기 어려운 새끼 딸린 기린, 하마 등도 좋은 볼거리 있지만 눈이 쌓인 철강속의 흰 눈배미는 얼른 봐서는 눈과 구별이 안되어 신기할 정도였다.



하얗게 눈 쌓인 농지 별관에 서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마일드 세븐 광고 나무들 얼핏보면 별거 아닌거 같지만 홍보를 잘하여 유명 명소로 알려진 점이 돋보였고 그 눈속에서도 관광차량과 인파가 물리는걸 보고는 우리도 본받아 자그만 것도의 미 부여하여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흰수염 폭포도 볼만한 코스이나 푸른 호수는 눈으로 덮여 있어 호수의 모습을 볼수없는 아쉬움이 있었고, 다쿠신칸(일본 유명 사진 작가 사진 전시장)과 자작 나무숲은 꼭 가보야 할 관광지 이며 특히 눈쌓인 설경은 사진으로 남겨 놓아야할 꼭 추천하고 싶은 코스입니다.

삿쵸로 시내에서 간 시로이 코이비도 파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스이며 사진도 남기고 초콜릿 만드는 과정도 볼수있는 곳입니다.

숙박지는 료간으로 모라노유 하나기구라(깨끗한 숙소와 정갈한 식사, 노천온천도 가능)와 특히 추억에 남는 스텔라 펜션(현지TV에도 방영된 유명한 집이며 주인 아사쿠라씨내외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부인이 직접 만든 가정식 식사를 맛볼 수 있고 눈도 많이 쌓여 아이들 미끄럼, 썰매 타기도 좋고 근교에 있는 白銀莊노천 온천도 할수 있음)은 강력히 추천하며, 삿쵸로 시내에서의 머큐어 호텔은 무난하며 시내 중심에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여 펜션은 호텔입니다.

식사는 중식은 라멘, 돈까스 등으로 하였고 나름대로 맛집 찾아 야키니쿠(부위별 소고기, 소시지 구이)와 카니(계)코스요리로 하였는데 요금은 다소 비싸도(1인당3-4만원) 권할만한 메뉴로 봅니다.

눈속에서도 길을 찾다니며 느낀 점은 방향과 거리를 몰라도 GPS가 너무 잘되어 있어 MAP CODE만 입력하면 아주 정확하게 안내하여 모르는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되어 있는 시스템과 편리함이 너무 좋게 느껴져서 유용하게 사용한 점이 부연도록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일본에서도 생활한 우리사위, 폭설오는 날씨속에 안전 운전하느라 너무 고생하였으나 들직하여 좋았고 여러나라 여행경험 많은 우리딸 코스짜며 준비한 과정과 결과에 고마움을 표하며 평생 첫 일본여행한 아들, 며느리 같이한 외손자 상명(어린애로만 알았는데 의젓하게 행동하며 주위까지 살필 줄 아는 모습에 너무 대견하고), 손녀 소연이와 정을 쌓은 시간들이 되어 좋았으며 용알이도 하며 잘 웃어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와 부대끼며 혈연의 정을 느끼게 해주어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앉아 가족의 소중함과 이번여행의 각자 느낌을 공유한 시간들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모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다는 공통된 마음이라 가까운 시간에 또 뽀내어 같이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에는 더 쉽게 더즐거게 같이 하리라 고봅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지출도 따르겠습니다만 금전으로 따질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족애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른에게서 볼 북해도도 좋았으나 이번 겨울 여행지인 설경의 북해도 꼭 한번 다녀 오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다소는 무리가 되더라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도 이런 시간들 가져 보시도록 합니다.

강준구의 기사를 존중, 고침없이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있는 곳...

###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애환이 깃든 간이역

한때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때로는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애환으로 기억의 저편에 남아 있는 그리움의 간이역.

간이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옛모습, 그리고 그 때의 정서가 묻어나는 고향의 느낌을 따라 '간이역'을 찾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간이역들은 모두 현대화되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합실을 개조하고 역사를 넓히고 반듯반듯하게 정돈을 해 놓아 실상 간이역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아쉬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이역은 우리에게 고향역과 같은 존재다.

작고 호젓한 간이역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도, 대합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하루에 고작 몇 명뿐일 때에도 언제나 작지만 넉넉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속이나 등장합직한 경전선을 따라 아름다운 간이역들을 이 겨울 정겨운 기차여행을 떠나본다.

모두가 남도의 간이역과의 만남으로 올 겨울을 파스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 경남과 전남을 이어주는 추억의 경전선

경전선은 경부선의 경상남도 밀양 삼랑진과 호남선의 광주 승정리를 잇는 철도다. 총길이 300.6km로 삼랑진~마산~진주~순천~승정리로 이어지는 경상남도도 전라도, 즉 우리나라 남쪽 땅을 고르게 달리는 철도다. 또한 승정리역에서 호남선과, 삼랑진역에서 경부선과 연결되니, 경전선은 호남선과 경부선을 잇는 철도인 셈이다.

짐바따리 안손에 들고 플랫폼에서 기차에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 서울을 오가는 기차가 아니니 평소에는 붐비는 사람들로 시끌거리지 않는다. 기차여행을 하려거든 이 경전선에 올라보라고 권하고 싶을만큼 이 코스는 추억을 새록새록 일깨워 준다.

이번 여행은 벌교역~독랑역~영봉역~앵남역~남평역

이다. 기차 안에서 한두 번 보았을 이 역들은 작지만 아름다운 역이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보았을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간이역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이 중 남평역과 영봉역은 보존역으로 지정된 역이다.

최근 코레일은 경전선 뿐만 아니라 전국 간이역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많이 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 벌교역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민족전쟁이 끝난지 벌써 반세기가 넘은지 오래다. 벌교는 태백산맥 소설 조정래 선생이 살았던 곳이며 태백산맥의 주무대로 근현대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벌교는 지리적으로 순천만 여자를 끼고 고흥, 순천 등으로 빠지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조선중엽 부사군에 속하였다가 1914년 고상면과 남면을 병합하여 벌교면이라 개칭하였으며 1929년 순천군 동초면의 일부를 편입시켜 벌교읍으로 승격시켰다. 벌교라는 명칭은 땃목이라는 뜻으로 포구에 땃목을 엮어 다리를 놓아 건너다닌다 해서 유래한 이름이고 벌교역은 지역명을 따라 명명하였다.

1930년 12월 2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무궁화호가 운행되며 여객, 화물, 승차권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여수까지 돈자랑 말고, 순천까지 인물자랑 말고, 벌교까지 죽먹자랑 말고 했는데 이는 벌교가 독립운동을 많이 해 추억들이 많았다는 유래가 있다.

벌교역은 1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기자기한 역으로 하루 10차례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꼬막의 계절이다. 여자만의 깊고 찰진 갯바람 속에 자란 풀깃한 꼬막의 맛을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꼬막 다루는 법, 숯수 좋게 삶는 요령, 그리고 먹는 법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겨울 군침이 드는 꼬막이 제철이다.

꼬막 식당거리는 역에서 나와 을사무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꼬막정식 10,000원)

####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거리 독랑역

풍금치는 역장으로 유명해진 1930년 건설된 경전선 철도역으로 보성군의 작은 간이역인 독랑역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간이역 문화공간 프로젝트 실시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역에는 그때 그 시절 승무원복을 입은 철도원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밖으로 나오자 애 하고 감탄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7080 추억의 거리가 그곳에 있어 시간 여행은 것 같은 착각속으로 빠져든다.

나팔바지에 교련·교복을 입고 찾던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역전 만화방, 행운다방, 이발관, 의상실, 문구사, 전파사, 포니카페 등 독랑역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의 향수와 복고를 주제로한 다양한 컨텐츠가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익숙한 풍경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있었다.

독랑이라는 지역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식량을 조달하고 적을 퇴치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 향수와 추억을 찾아가는 남도의 시골역 독랑은 언제나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은하역사 전경

득량역은 1930년 12월 25일 경전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시에는 수소화물 취급과 함께 영업을 하였으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수소화물 취급은 1995년 9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광주도심철도 이설로 인하여 여객수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추세에 있으며, 주업은 여객취급과 득량역에서 보성역 방면 퇴행열차 인한 취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서재필 기념관, 보성차밭(다원)이 있다. 득량역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화 「선물」, 드라마 「여름향기」 촬영지로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이다.

**빨간 벽돌로 지은 명봉역**

봄향식 울음소리라는 뜻의 명봉역은 TV드라마 '여름향기'가 촬영된 곳으로 지금도 관광객, 사진매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다. 1930년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명봉역은 86년이 넘는 오랜 연륜을 지닌 역사로, 2008년까지만 역무원이 근무했으나 우리나라 간이역들이 다 그렇듯이 승객감소, 그리고 무인화 바람을 피할 수 없었는지 지금은 역무원이 없다.

애써 꾸민 듯 하지 않으면서 잘 다듬어진 역 앞, 그러면 서도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난다. 빨간 벽돌로 지은 역사와 함께...

지금은 앙상한 역사 앞 벚나무로 이겨울이 지나면 벚꽃이 만발, 관광객을 맞이 하리라.

명봉역 앞 주민 A씨는 "이곳은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오는 사람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A씨의 말처럼 시골역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이곳 명봉역도 한류에 한몫을 하는 셈이다. 그들은 드라마에 나온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좋아 한다고 한다.

이 곳 역시 남평역처럼 단순한 간이역이 아닌 하나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오래도록 이 역들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간이대합실만 남은 영남역**

앵두마을 '앵'자와 화남마을의 '남'자를 따서 영남이라고 지었다.

화순과 남평역 사이에 있는 영남역을 어느 시인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면 영남역으로 가보라고 했다는데... 다만 무언가 그리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때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영남역은 그냥 그렇게 고즈넉하게 서 있다.

이 곳은 변변한 역사도 없고 외로운 간이대합실만이 '앵남'이라는 이정표 뒤에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앵남간널목'이라고 쓰인 작은 역무실이 고작이다. 이 곳은 광주에서 도곡온천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지나는 곳. 보통은 차들이 건너는 길이고 열차가 지날 때만 차단기가 내려져 철도가 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기차는 그저 잠시의 주춧거리도 없이 영남역을 지나쳐 버리고 정차하는 기차조차 머무는 시간은 1분여 정도다.

영남역은 1932년 일제 강점기때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을 거쳐 반출시키기 위해 개설됐다. 1956년 무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승객감소로 1972년 역원이 배치되지 않는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2006년부터 이용객이 없어 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2008년 폐역이 됐다.



**나주의 유일한 남평역**

남평역은 나주의 유일한 기차역이다. 1930년 경전선의 개통과 함께 남평역이 문을 열었으니 이곳의 역사도 꽤나 깊다.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불타오르나 1956년 재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하루 8회 정차하는 간이역이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의 승객이 이용했던 곳. 광주로 오가는 학생들이 모두 이 역을 이용했다고 한다.

아담한 역사는 앞마당에 크고 넉넉하게 팔을 벌리고 있는 벚나무와 어우러져 한적함이 더하다. 이 벚나무는 역사가 불에 타는 동안에도 끄떡없이 버티어 현재까지 남평역과 함께 이용객들을 맞이한다. 낯익은 역전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단이며 금방이라도 기적소리를 울리며 기차가 들어올 것만 같은 철로들이 가슴을 따스하게 녹여준다.

간이역답게 환히 열려있는 개찰구. 열차 이용객이 아닌들 이 곳에 못 들어가랴.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만 확인하고 주의하면 누가 들어와도 별로 탓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남평역을 이용하는 남평 사람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낯이 익을 것이고 그 외에는 간이역을 찾은 여행객일 테니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남평역은 단순한 간이역이 아니다. 도시생활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명소로 스캐드 되었고 각자구의 시 '사공역에서' 또한 이 남평역이 배경이 되었다. 영화 '도마뱀'의 촬영도 있었다. 그리고 보면 이 역을 찾는 이도 적지 않을 터. 그래서 이 역을 지키는 역무원들의 마음도 이처럼 넉넉한지도 모르겠다.

역사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작은 공간이 참 예쁘다.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낮은 오르막 길도 짧지만 S자형으로 굽어져 있어 운치 있고 그 길의 양쪽에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측백나무도 인상적이다. 직선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요즘, 참 여유가 느껴지는 풍경이다. 그리고 철로의 건너편은 높은 양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 남평역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역사는 정면이 철로쪽을 향해 있으며 건축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광장 쪽의 건물 후면은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다. 돌출된 역무실은 추녀마루가 경사지게 올라가 용마루에서 모이는 모양지붕인 것이 특징이다.

지붕은 주를 함석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축 부분은 패널형 지붕재를 사용하였다. 대합실 왼쪽으로 나 있는 창문은 원래 목재 창호였던 것이 알루미늄 새시로 바뀐 듯 하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대륙항공여행사 장순복 대표의 문화역사기행

##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 명소기행」 출간

인류 문명의 시작,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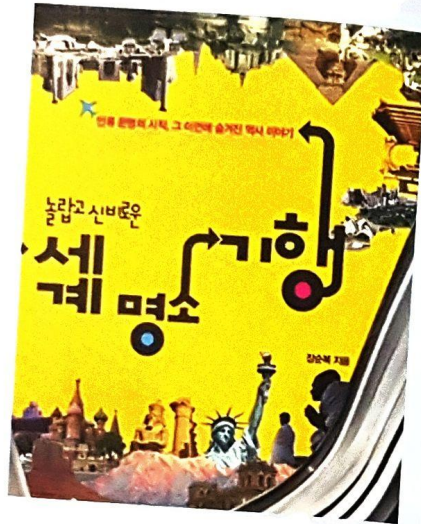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 명소 기행」이 대륙항공여행사 장순복 대표에 의해 출간됐다.

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여행만큼 탁월한 프리즘은 없다. “왜 여행을 떠나느냐?”는 질문에 대개의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격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외롭고 힘들어서’ 또는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이곳의 생(生)에서 쌓인 슬픔을 털어내기 위해서’라고 할지도 모른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자신을 구속 시키며 상대를 지배하려 들었던 당신을 위하여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떠난다는 건 이미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지금도 눈 감으면 생각나는 나만의 그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들은 죽기 전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해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 이른 문명의 현장을 가 본다는 건 잃어버린 시대의 비밀을 전하는 수수께끼를 만나는 것이자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영혼을 만나는 일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인류문명사, 세계 고고학 발굴사, 종교사, 전쟁사, 건축사 등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류가 어떻게 번영하고 몰락해 갔는가를 이야기하며, 그들 앞에서 시대를 함께 꿰뚫어볼 수 있는 철학을 논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구상에는 죽기 전에 꼭 가 보고 싶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소, 천국 같은 휴양지, 아름다운 호텔과 리조트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를 여행해 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를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여행지로서 명소에 대한 단순한 소개가 아닌 세계 각국의 명소와 관련된 고대 문명의 고고학적 내용과 신화적 내용, 그리고 발굴 비화가 담긴 내용을 함께 다루어 여행 안내서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살아 있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그곳에 가 볼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저자는 부산 박물관회, 부산초량왜관 연구회 학술위원으로 부산 관광협회 부회장, 한일 고대 교류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KBS, MBC, 교통방송, 불교방송 여행길라잡이 방송인으로 25년째 방송 중이며, 세계 여행 자유기고가, 여행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고고학을 비롯한 잃어버린 역사를 조명하는 문화 유적 답사 모임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만들어 2015년 9월 23일 500회 답사 기록을 달성했다.

1991년 대륙항공여행사 대표이사로 취임, 기독교 부산방송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 임진왜란 400주년 일본 이종호국영령 환국... 봉황 행사,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령대제 등을 주관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저서로 『실천항공예약 TOPAS 활용』 등이 있다

이효영 기자

##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국토해양부에서 1년 52주에 맞춰 매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경관도로 52선'을 선정했다.

경관도로(Scenic Road)는 도로와 주변이 환경이 어우러져 도로 이용자가 시각적·심미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며, 전망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이다.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3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